

광주·전남 여자 좌식배구 “내년 한단계 성장한 모습 보일 것”



전남, 충남과 폴세트 접전 끝 2-3 패...은메달 기록
광주, 4위 마무리...이은숙 “초반 리드 못 지켜 아쉬워”

대회마지막날 치열한 승부 끝에 전남이 여자좌식 배구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는 4위로 마무리했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여자 좌식배구 오픈(선수부) 경기가 5일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열렸다. 전남은 결승에서 충남과 폴세트 접전을 벌인 끝에 세트스코어 2-3(21-25 25-12 25-12 13-25 16-18)으로 지난해에 이어 은메달을 기록했다.

이번에도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전남 박신숙은 경기 직후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며 “마지막 세트 근소한 차이로 지게 돼 많이 아쉽다. 연습한 것이 제대로 안 나와 속상하다. 내가 센터로서 더 받쳐줬어야 하는데 잘 안된 것 같아 팀에 미안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에 살면서 주말마다 훈련을 위해 나주에 오는 박신숙은 “원래 제주도 소속이었는데 3년 전 팀이 해체됐다. 잠깐 쉬었다가 2년 전부터 전남팀에 합류해 좌식배구를 다시 시작했다”며 “매주 주말 제주도에서 광주공항으로 와서, 나주 체육관에서 1박 2일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힘들어도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훈련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며 웃어보였다.

건강 문제로 대회 석 달 전에 합류한 막내 이정임은 “재밌었지만 정말 아쉽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느꼈다”며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이어나가겠다”고 금메달을 향한 야심을 드러냈다.

광주 여자팀은 3-4위전에서 초반 흐름을 주도했으나 끝내 뒷심 부족으로 승기를 잃었다.

9년째 광주팀에서 뛰고 있는 이은숙은 “전국대회에서 자주 만나는 팀들이라 서로를 너무 잘 안다. 경기 팀이 워낙 잘해 부담이 있었다. 전남 팀 미팅에서 ‘긴장 내려놓고 즐기자’고 다짐했고, 그 덕에 1세트가 잘 살았다. 리드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해 아쉽지만 잘 해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래 임식배구 클럽에서 뛰었다. 소아마비 이력을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좌식배구를 하려면 ‘나’를 오픈해야 했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석 달을 잠 못 이루었다”며 좌식배구를 시작한 개인적 배경을 밝힌 그는 “조금이라도 다리가 성한 내가 코트에서 물 한 병 건네고 공을 주우며,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의미라느 걸 알게 됐다”고 2028년 광주에서 개최될 체전까지 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광주 여자팀은 선수 8명 체제로 광주장애인체육



5일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여자 좌식배구 오픈 경기에서 광주(오른쪽)가 3-4위 결정전을 펼치고 있다.

관에서 훈련한다.

비장애인 여자클럽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연습 경기·코트 보조·볼 퍼실리테이션 등으로 이들의 훈련을 돕고 있다.

이은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앉아 연습해주는 팀들이 많다. 그분들 덕에 덜 서글프고 더 단단하게 운동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광주와 전남 선수단 모두 좌식배구 발전을 위해 ‘선수층 확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학교·생활체

육 연계 발굴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2017년부터 된 전남팀 베테랑 주장 김광덕은 “전남 출신은 나랑, 감독님 뿐이다. 도내 신규 유입이 거의 없다. 좌식배구를 모르는 분이 많다”며 “올해 신입이 딱 한 명 들어왔다.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알려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좌식배구 박정현 감독은 “타 팀에 비해 나이도 많은 편이고, 신장도 작다”며 “젊은 선수층 탓에 백업 선수도 부족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열악한 환경속에도 다들 잘해주고 있다. 신규 선수 발굴도, 훈련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엔 반드시 금메달에 도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는 남자 좌식배구오픈에서 5위를 기록, 종합 3위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부산 글·사진=박연수 기자 training@

전국장애인체전, 광주 6위·전남 7위로 마무리

광주 3관왕 9명·한국新 12개 등
전남, 원정 역대 최고 성적 기록

부산에서 펼쳐진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5일 폐막식과 함께 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광주 선수단은 금 67개, 은 69개, 동 57개로 11만 9852점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6위로 대회를 끝냈다.

전남선수단은 금 44개, 은 54개, 동 57개로 10만 5928점을 얻으면서 종합순위 7위를 차지했다. 지난 대회보다 두 계단 상승한, 원정 역대 최고 성적이다.

광주는 9명의 3관왕을 배출했다. 한국 신기록 12개, 한국 타이기록 1개, 대회신기록 6개도 작성했다.

양궁 강세가 이어졌다. 광주 양궁은 지난해에 이어 5966.40점(금3, 은4, 동4)을 합작하면서 종합

1위에 올랐다. 보치아, 배구 선수단도 종합 3위를 기록했다.

광주 지체측구팀 FC광주엔젤은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광주는 결승에서 만난 서울을 3-0으로 꺾고 정상 자리를 지켰다. 이와 함께 통산 11번째 전국장애인체전 우승을 이뤘다.

당구 종목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이 만들어졌다. 류형욱, 강대식, 이병귀, 신용수로 구성된 당구 선수단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2개씩 수확하는 등 최종 4040점을 광주에 안겨줬다.

전남에서도 3관왕이 연이어 탄생했다. 사격 이운리를 필두로 6명이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 유병상이 남자 -85kg급 스쿼트 OPEN(시각·동호인부)에서 185kg를 들어 올리면서 한국신 기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 행진도 이어졌다. 전남 선수단은 3개의 대회 신기록도 작성했다.

카누와 소다운은 종합 1위로 대회를 마무리했

다. 카누는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최강’ 전력을 자랑했다.

손영숙이 여자 바아 200m 스프린트 VL3(선수부)와 카약 200m 스프린트 KL2(선수부)에서 2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면서 카누 종목 질주를 이끌었다.

또 론볼이 2위, 사이클과 당구가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재미선수단 등 9805명(선수 6106명, 임원 및 관계자 3699명)이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열전의 무대를 펼쳤다.

경기도가 25만 288.88점을 얻으면서 대회 5연패에 성공했다.

사격에서 6개의 금메달을 명중한 김정남(세종)이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출전한 3개 종목에서 모두 한국신기록을 달성한 육상 신현진(경북)이 신인선수상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서 당구 월드컵 개최...꿈 같은 일”

광주당구연맹 김연석 전무

“광주에서 세계 당구 월드컵이라니 꿈에만 그릴 일입니다.”

‘2025 광주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GWANGJU WORLD CUP 3-Cushion 2025)’을 주관한 광주당구연맹의 김연석 전무 이사는 예선전이 펼쳐지는 빛고을체육관을 내려다보며 “상상도 못 한 꿈만 꾸던 일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개막해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은 세계캐롬당구연맹(UMB)과 아시아캐롬당구연맹(ACBC)이 주최하고 대한당구연맹(KBF)과 광주당구연맹(GBF)이 주관하는 대회로 광주에서는 첫 개최다.

김 전무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3쿠션 월드컵을 개최한 곳은 서울이나 수도권이였다. 그나마 청주에서 열렸었는데 그보다 아래 지역에서 열린 건 광주가 처음”이라고 했다.

올해 개최지 역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유력했으나 예산 편성 문제로 줄줄이 대회 유치를 포기하면서 광주에게도 기회가 열렸다.

광주 역시 예산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광주당구연맹의 박종규 회장이 사비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면서 광주의 개최가 성사됐다.

김 전무는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자칫하면 (한국에서) 유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다”며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었는데 가능하게 됐다. 상황도 맞아떨어졌고 운도 따랐다”라고 했다.

어렵게 연 대회인 만큼 경기장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 전무는 “관중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기존 관중석 앞에 새 좌석을 제작했다. 사방에서 스코어와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형 전광판도 달았다. 꼭 e-스포츠 경기장 느낌도 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장 환경은 역대급이라고 자부한다. 어떤 선수는 ‘비록 결과는 져어도 이런 경기장에서 시합했다는 데 만족한다’라고 하더라.



5일 '2025 광주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빛고을체육관에서 광주당구연맹의 김연석 전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준비할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 뿌듯했다”며 웃어 보였다.

가장 시선을 끄는 경기는 7일 32강전에서 만나는 ‘세계 랭킹 2위’ 조명우(서울시청)와 ‘국내 월드컵 최다 우승자’ 김행직(전남당구연맹)의 맞대결이다.

김 전무는 “조명우 선수는 김행직 선수의 매탄고 당구부 후배이기도 하다.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 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명우 선수가 (세계 랭킹) 1등이었는데 최근 대회에서 에디 맥스(벨기에)가 우승하면서 2위가 됐다. 조명우 선수가 다시 랭킹 1위로 갈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다.

광주당구연맹은 월드컵 연속 개최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김 전무는 “3년까지는 개최 신청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다. 벌써 여기저기서 내년에 개최하고 싶다고 전화가 온다. 예산을 마련하려면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광주에서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다. 시와 시체육회와 잘 협의해 내년에도 유치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글·사진=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

최정 9단, 4개월 만에 여자랭킹 1위 탈환...신진서, 71개월 연속 1위

최정(사진) 9단이 4개월 만에 여자 바둑 1인자로 복귀했다.

최정은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11월 랭킹에서 9490점을 기록해 김은지(9487점) 9단을 3점 차이로 따돌렸다.

이로써 최정은 7월 랭킹 이후 넉 달 만에 김은지를 제치고 다시 여자 랭킹 1위에 올랐다.

최정은 지난 달 6승 4패를 기록하며 랭킹 점수 21점을 보냈다.

신진서 9단과 맞붙은 ‘보령 빅 매치’에서 3연패를 당했지만, 김은지와 나카무라 스미레 4단, 김다영 5단 등 여자 선수들과 대국에서는 모두 승리했다.

종합 랭킹에서는 최정이 28위, 김은지는 29위를 차지했다.

여자랭킹 3위인 오유진 9단은 종합 랭킹에서



지켰다.

신진서는 지난 10월 란커배 결승에서 아쉽게 준

12계단 오른 52위, 스미레 4단은 7계단 하락한 97위, 김채영 9단도 7계단 밀린 100위에 자리했다.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절대강자 신진서 9단은 71개월 연속 종합 랭킹 1위를

우승에 그쳤지만 한 달 동안 9승 2패로 기세를 이어나갔다.

박정환 9단은 변동 없이 2위를 지켰고, 변상일 9단은 3계단 오른 3위가 됐다.

안성준 9단은 4위를 차지했고, 신민준 9단과 이치현 9단이 5위와 6위에 올랐다.

7~10위에는 강동윤·김명훈·김지석·박민규 9단이 자리했다.

한편 지난달 9승 4패를 기록한 윤성식 4단은 106위에서 74위로 32계단 점프해 100위권에 재진입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즐거움

문화산책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찾그릇에 뜬 달 : 김기현×정우식

일시 : 2025-10-31(금) ~ 2025-11-30(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0회 정기연주회
'혁명가들'

일시 : 2025-11-14(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